

# 지난해 시장경기 위축 · 가격하락 을 하반기 가격상승 불가피

IMF이후 석유화학업계는 국내의 시장의 수요 위축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었으며 이에따라 98년 이후 추진 예정이던 국내의 투자계획도 대폭 축소됐다.

합성수지의 경우 가동률 하락과 고환율 · 고금리에 따른 중소가공업체의 부실화 등으로 내수가 전년대비 28.8% 감소한 2,825천톤을 기록했다.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PE/PVC국가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석유화학업계에서 눈에 띄었던 것이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인데 내부 및 외부적으로 추진 외부적으로는 경쟁력이 없는 비주력사업을 매각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개선을 꾀하였고 그룹차원에서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업 인수도 눈에 띄었다.

최근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의 기업합병, 대림산업과 한화종합화학의 NCC통합 HDPE · PP/LLDPE 사업교환 등의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98년 기준 에틸렌 수요는 5,001천톤으로 전

년대비 11.9% 증가했다. 이것은 현대석유화학의 HD/LLDPE 160천톤, LLDPE 140천톤, EG 250천톤, SM 250천톤, VCM 200천톤 공장의 신규가동으로 약 600천톤의 에틸렌 수요가 추가 발생했다. 생산은 총 660천톤의 생산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15.3% 증가한 5,139천톤을 기록했다. 수요증가량을 보다 생산증가량이 크기때문에 수출은 전년대비 67.4% 증가한 242천톤을 기록했고, 수입은 전년대비 34.3% 감소한 105천톤을 기록했다.

99년 에틸렌수요는 호남석유화학의 연산 105천톤 규모의 HDPE 신규공장이 가동됨에 따라 유도체의 생산증가량에 힘입어 전년대비 2.3% 증가한 5,117천톤으로 전망된다.

에틸렌 생산의 용도별 수요는 LDPE 20%, SM 15%, HDPE 16%, EG 29%, VCM 9%, EDC 9%이다.

LLDPE를 포함한 LDPE 생산능력은 지난해 현대가 140천톤 규모의 신규공장을 완공, 가동함에 따라 1,678천톤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표 1] 합성수지 연도별 생산현황

제품	년도	1996	1997	1998	1999(Pro)		
					증감률(%)	증감률(%)	
합성수지	생산	6,791	7,541	7,921	5.0	8,163	3.1
	수입	162	121	65	△46.5	57	△12.8
	수출	3,009	3,696	5,161	39.6	5,199	0.7
	내수	3,944	3,966	2,825	△28.8	3,020	6.9

[표 2] 국내올레핀(에틸렌, 프로필렌)년도별 현황

종류	년도	1996	1997	1998	1999(Pro)		
					G.R(%)	G.R(%)	
Ethylene	Year-end Capacity	4,340	4,920	5,000		5,000	
	Production	4,016	4,456	5,139	15.3	5,167	0.5
	Import	81	159	105	△34.3	150	43.2
	Export	299	145	242	67.4	200	△17.4
	Demand	3,797	4,471	5,001	11.9	5,117	2.3
Propylene	Year-end Capacity	2,602	3,282	3,351		3,351	
	Production	2,258	2,660	3,459	15.3	3,360	△2.9
	Import	115	142	158	10.8	160	1.6
	Export	235	209	293	40.2	198	△32.5
	Demand	2,138	2,593	3,324	13.3	3,322	0.0

IMF이후 5.0% 증가한 1,420천톤을 기록했다. 여기서 내수는 26.5% 감소한 576천톤에 그치고 있다.

한편 내수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업체들이 수출에 주력 98년도 LDPE수출은 전년대비 44.3%증가한 871천톤을 기록했으며 반대로 수입의 경우는 22.3% 감소한 28천톤에 머물렀다.

반면 올해 수요는 전년대비 6.4% 증가한 613천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은 1.6% 증가한 1,443천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출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심화로 다소 부진이 예상돼 854만톤을 기록 전년대비 2.0% 감소할 것이며 수입은 전년대비 12.9% 감소한 24천톤에 머물것으로 전망된다.

HDPE생산은 1,571천톤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한 반면 국내수요는 33.6% 감소한 450천톤에 그친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은 전년대비 29.7% 증가한 1,126천톤을 기록했다. 올해는 업체들이 내수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수요는 전년대비 14.1%증가한 513천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초부터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HDPE 필름판매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수요를 줄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석유화학의 105천톤 규모의

신규공장가동으로 생산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1,680천톤을 기록할 것이며 수출은 주요 수출지역인 동남아시아의 경기침체 지속 및 수출업체들의 경쟁심화로 전년대비 3.9%증가에 그친 1,170천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98년도 PP생산은 저년대비 11.1% 늘어난 2,293천톤을 기록했으나 국내 판매는 경기위축에 따른 가공제 품의 수요감소 및 연관산업의 가동률 저조로 전년대비 20.0% 감소한 737만톤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98년은 신증설로 인한 공급증가와 원화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그리고 국내 판매 부진에 따라 업체들이 수출에 주력, 이에따라 98년도 PP수출은 전년대비 34.9% 증가한 1,565천톤을 기록했다.

올해는 신증설이 없는 관계로 생산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2345천톤에 머물것이 예상되며 국내 수요의 경우 관련산업의 경기회복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한 788천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99년 수출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1,565천톤에 머물것으로 예상된다.

98년 PS국내판매는 전년대비 32.3% 감소한 322천톤에 머물렀으며 생산은 0.2% 증가에 그친 942천톤이다. 수출은 623천톤으로 31% 증

[표 3] HDPE, LDPE, PP 년도별 생산현황

		1997	1998	1999(Prospect)
H D P E	Supply	Production	1,538,501	1,571,468
		Import	6,888	3,877
		Total	1,545,389	1,573,345
	Demand	Domestic	677,436	449,591
		Export	867,953	1,125,754
		Total	1,545,389	1,575,345
Year-endCapacity		1,583,000	1,625,000	1,730,000
		1997	1998	1999(Prospect)
L D P E	Supply	Production	1,352,230	1,420,184
		Import	35,447	27,551
		Total	1,387,677	1,447,735
	Demand	Domestic	783,943	576,246
		Export	603,734	871,489
		Total	1,387,677	1,447,735
Year-endCapacity		1,538,000	1,678,000	1,678,000
		1997	1998	1999(Prospect)
P P	Supply	Production	2,063,853	2,292,838
		Import	16,948	8,773
		Total	2,080,801	2,301,611
	Demand	Domestic	920,931	736,668
		Export	1,159,870	1,564,943
		Total	2,080,801	2,301,611
Year-end Capacity		2,435,000	2,435,000	2,435,000

가하였고 가동률은 97년 90%에서 98년 89%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EPS의 생산은 내수시장 급감으로 수출로 방향을 전환하여 98년 117천톤으로 31% 증가하였으나 전체 판매량은 15% 감소했다.

올해는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되고 유가공제품의 판매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환경문제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국내판매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며 전년대비 6%정도 성장이 기대된다. 한편 PSP 시트업체는 98년 내분비계장애물질 논란으로 수요가 최악이었으나 차츰 회복의 기미를 보여 보다 최근 일회용품의 환경관련 규제에 다시 어려움을 겪고있다.

수출은 중국 및 홍콩등지에서의 수요증가가 예상되나 로칼공급의 증가로 수입량이 줄 것으

로 보이며 1/4분기이후 내수의 증가에 따라 전년도 수준보다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석유화학산업은 지난해 크게 위축되었던 국내수요가 다소 회복될 것이 예상되지만 원화 가치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와 주요 수입국에서의 무역규제 강화, 원가상승, 아시아 주요 수입국들의 자급화 진전과 일부품목의 수출 전환 등의 원인으로 지난해의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된다. 한편 합성수지 폐기물,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다이옥신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어 이것이 시장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업체들이 이에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다. [☞] (자료제공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이선하 기자